

“교육명가 전북의 부활 완성할 것”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 교육감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서 공약 발표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침체된 전북교육을 다시 살리겠다”며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전라북도교육감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지난달 30일 서거석 전 총장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학교를 명문대의 반열에 올려놓았다”며 “반드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해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총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변화가 개인이나 조직 발전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실감했다”며 “무너져 가는 전북교육을 살려내겠다는 사명감과 살신의 마음이 이 자리에 서게 했고, ‘교육명가 전북의 부활’을 완성하기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서거석 전 전북대학교 총장은 전북도교육청에서 회견을 열고 “반드시 교육감 선거에서 승리해 전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이날 서 전 총장은 ▲학부모가 안심하는 학교, 학생이 안전한 학교 ▲기초학력과 학력증진 ▲모든 학생이 꿈을 키워나가는 학교 ▲교직원 모두 자긍심을 갖는 학교 ▲소통과 공감의 전북교육 등의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서 전 총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제16대 전북대학교 총장을 역임하면서 제19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제 4기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교육분야 위원장 등을 겸임했다.

또한 최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전북은 교육민족은 ‘교육 명가’라는 소리를 들어왔었는데, 최근엔 교육마저 밀바다를 헤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이상민 기자

전일여객 격일제 → 1일2교대제 전환

내달 3월까지 시범운영 후 보완 안전운전·친절서비스 향상 기대

전주시내버스 회사인 전일여객은 근무자 1일2교대제 시범운영에 나섰다.

지난 1일 시에 따르면 전일여객은 이날 첫차를 시작으로 근무형태를 그동안의 하루 종일 버스를 운전하고 다음날 쉬는 격일제에서 1일2교대제로 전환·시행한다.

이에 따라 운수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친절서비스가 향상, 피로도 감소로 승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 하루 18시간씩 버스를 운전해야 했던 전일여객 운수노동자 217명은 이날부터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93대 버스를 운전하게 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20일 전일여객 노·사·정 합동 기자회견을 통해 2월부터 1일2교대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청주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를 견학하는 등 전주시 실정에 맞는 1일2교대제를 시행하기 위해 교대시간과

교대장소, 교대주기 등을 점검해 왔다.

시와 전일여객 노·사는 오는 3월까지 진행되는 시범 운영을 통해 교대 근무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모든 전주시내버스 회사가 운수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하고 친절한 시내버스 환경을 만들기 위한 1일2교대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강준 시민교통과장은 “1일2교대제가 실시되면서 운수노동자들의 피로도가 감소돼 시내버스가 보다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해진 몸과 마음으로 인해 발생했던 고질적인 시내버스 불친절 문제가 해소돼 대중교통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원광대 직원들, 교육부 장관 표창

이윤원·노주현·배문홍·송원욱 씨 직무역량 인정받아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이윤원 기획부처장, 노주현 담당관, 배문홍, 송원욱 직원이 담당 직무역량을 인정받아 각각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장을 받았다.

이윤원 부처장은 33년의 재직 기간 중 재정 분야에서 23년을 근무하면서 클린카드제도도입과 등록금납부방

식 개선, 예산제도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재정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회계 분야 정보교류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노주현 담당관은 대학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계획 수립과 입학금 감소에 따른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으며, 배문홍

교원인사담당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제도 도입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강사법 운영방안 및 관련 규정의 제·개정 확립 등 교원인사제도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프라임사업단 송원욱 사업기획담당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2차년도 전국 PRIME사업협의회 회사를 맡아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및 21개 PRIME 사업 참여 대학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성과 확산에 기여하고, 원광대가 1차년도 연차평가

양호등급 획득에 이어 사업비 추가 인센티브 약 11억 5천만 원을 수주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송원욱 주무관은 “PRIME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을 대신하여 받은 상이라고 생각하고, 남은 사업 기간도 우리 대학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도중 총장은 교육부장관을 대신해 직원들에게 표창장을 전달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익산=장양원 기자



황호진 도교육감 출마예정자 부안 출입기자 간담회 열어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부안의 교육현장에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모 중학교에 근무하시다가 작고하신 선생님의 부인께서 한 포털의 공개 청원글에서 ‘부패한 교육행정과 오만한 학생인권센터가 제 남편을 죽였다’고 호소, 전북교육청의 불통행정이 교육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수많은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1일 부안군 출입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안교육발전을 위해서는 부안군과 부안교육지원청이 전면적인 협력체제를 구축, 시너지효과를 만들어 내어 농어촌교육특구사업 등은 일과성 전시행정이 아니라 모든 학교의 교육운영을 지역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지속적인 교육성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안에는 백산중·고등학교 등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사학들이 군민들의 사랑을 받으며 지역의 교육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교육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도 공립학교에 비해 차별받지 않고 부안의 명문사학들을 특성화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황호진 전북교육감 출마예정자는 부안군 관내 능력 있는 선생님들이 배치되어 부안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안=이옥수 기자

도교육청 821개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5일부터 내달 23일까지 학교·어린이 놀이시설 등

전북도교육청이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인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도내 821개 교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내 전체 학교와 직속기관 건물, 학교 내 공사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다.

이번 안전 점검은 민관합동점검 및 자체확인점검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건물 및 시설물 위험요소(전기, 가스, 소방 등)와 학생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계단, 운동장 등) 시설이다.

전북도 교육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재난의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해 조기 해소가 되도록 투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며 “시급한 응급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접근금지, 출입 통제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선행해 학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민근 기자

가장 한국적인 세계도시 전주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우뚝 서겠습니다

사람과 도시를 품게서 전주